

보도자료

2010년 8월 20일(금)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통신정책국 통신자원정책과 박준선 과장(☎750-2570)
통신자원정책과 이준희 사무관(☎750-2575) info0914@kcc.go.kr**방통위, 『FMC 단일번호 서비스』 허용****- 8월중 FMC 인터넷전화로 걸어도 이동전화 번호로 표시 -**

앞으로 FMC(유·무선융합) 서비스 이용자는 이동전화 번호(010)로 인터넷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일 FMC 단말기로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때, 기존 이동전화 번호를 발신번호로 표시되는 『FMC 단일번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FMC(Fixed Mobile Convergence)는 하나의 단말기로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무선랜(WiFi) 지역에서 이동전화 대신 저렴한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어 통신비 절감에 큰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FMC 서비스 이용자는 이동전화(010)로 걸 때와 인터넷전화(070)로 걸 때 각각 다른 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 왔다.

특히, FMC 서비스 이용자가 무선랜 지역을 벗어나면 인터넷전화로는 수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FMC 단일번호 서비스』 시행으로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수 있고, 유·무선 융합서비스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FMC 서비스 이용자의 인터넷전화 통화비중은 약 17%를 차지하고 있어 연간 약 2만2천원의 통신비가 절감되고 있으나, 앞으로 인터넷전화 사용여건이 개선되어 통화비중이 늘어나면 통신비가 더욱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무선랜 지역이 전국에 약 3만 6천개가 구축되어 있고, 연말까지 3만개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며, 『FMC 단일번호 서비스』를 허용함으로써 사업자간의 경쟁도 활발해져 인터넷전화 이용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FMC 단일번호 서비스』를 원하는 가입자에 한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원치 않으면 기존처럼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FMC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통사의 관련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FMC 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 모두 시행중이며, 이용 가능한 단말기는 KT 11종, SKT 8종, LGU+ 8종이 출시되어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FMC 단일번호 서비스』에 이어, 향후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m-VoIP (무선인터넷전화)의 발신번호 단일화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참고자료>

□ FMC 서비스 가입자 현황('10.7월말)

(단위 : 명)

구분	SKT	KT	LGU+	계
가입자	2천	24만3천	1천	24만6천

□ 사업자별 공용 무선랜(WiFi) 구축 현황

(단위 : 국소)

구분	SKT	KT	LGU+	계
'10.7월말 현재	6천	3만	0(설치 중)	3만6천
'10년말 계획	1만5천	4만	1만1천	6만6천

□ FMC 단말기 출시 현황

(‘10.7월말 기준)

구분	SKT	KT	LGU+	계
단말기	8종	11종	8종	27종

□ KT FMC 단일번호 조작법

- 발신번호 010 설정 시 : *버튼 + '01' + '통화'버튼
- 발신번호 070 설정 시 : *버튼 + '07' + '통화'버튼

※ 본 방식은 KT에서 출시하는 모든 FMC 단말기에 통용되며, SKT와 LGU+는 아직까지 단일번호 서비스가 개발되지 않아, 단말기 조작법이 없음